국내
마감시황

2025.10. 13.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미·중 갈등 재점화 우려에 혼조세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와 미국의 관세 인상 위협에 경계감 확산
트럼프의 유화적 발언에 코스피 낙폭 축소

주요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3,584.55pt (-0.72%)	860.49pt (+0.12%)	501.87pt (-1.01%)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25.80 원 (-1.2 원)	2.9320% (-3.2bp)	6,685.00pt (+1.36%)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억)	KOSDAQ (억)	KOSPI200 선물 (억)
개인	+11,689 억	+1,167 억	-120 억
외국인	-8,223 억	-1,019 억	-6,843 억
기관	-4,479 억	-133 억	+6,886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등의 수출 제한을 강화한 것에 대해 트럼프는 11월 1일부터 대중국 관세를 100% 부과하고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재점화될 우려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해당 영향에 국내 증시는 약세로 출발했으나, 주말간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에 개방적임을 시사하면서 코스피는 낙폭을 축소했고, 코스닥은 상승 반전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장중 1,430원을 돌파했지만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상승폭을 되돌렸습니다. KOSPI는 0.72% 내렸고, KOSDAQ은 0.12% 올랐습니다.
-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KOSPI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화학과 전기·가스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기계·장비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한편, 기관은 기계·장비와 전기·전자 업종을 매수했고, 운송장비·부품과 금융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중국 배터리 소재의 수출 제한에 따른 반사 수혜 전망으로 국내 이차전지주가 상승했습니다. 관세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엔터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따른 가격 상승 및 미국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에 고려아연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 영향으로 반도체주가 동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이 완화되자 방산주가 하락했습니다. 그 밖에 자동차, 금융주가 내렸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고려아연(+19.48%), 에코프로비엠(+4.90%), 하이브(+4.22%)가 올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4.70%), SK하이닉스(-3.04%), 삼성전자(-1.17%)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